**5/12 독서와 토론 - 3조 토론 내용**

**사회자: 이다은**

**발표자: 공승준**

**조 명단(조원 이름): 공승준 강동균 이다은 이서희 최재현**

**책 내용에서 인상적인 부분과 인상적인 이유를 공유해보자.**

**이서희**: 약자일수록 약자를 더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난민 수용에 대해 더 반대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나도 성 평등에 있어 여성이라는 약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난민이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범죄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된다. 난민이라는 시각보다는 남성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돕고 배려할 생각보다는 나의 특권에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먼저 생각하게되는 나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었다.

**이다은**: 57페이지에서 우리가 차별주의자에 대한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이라는 것, 내가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공평한 세상을 지향했고 차별하는 이들을 아니꼽게 보고 비판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런데 책을 읽으며 생각해보니, 나 또한 나쁜 의도 없이 많은 소수자들을 차별하며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 저소득층, 성 소수자 등 소수자들에게 늘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그 조심스럽게 대해왔던 것 마저도 차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재현**: “이 풍경 전체를 보려면 세상에서 한 발짝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알기 위해 나와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과 대화해보아야 한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모두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지만 모두가 각자 다른 위치에서 있었고, 차별을 알아채는 것도 노력해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깊었습니다.

**2.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를 추측해보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해보자**.

**공승준**: 차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도 차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 책을 쓴 것 같다. 저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 그 점을 느꼈다.

­**강동균**: 조심스럽게 차별하지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여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써서 말해준 것 같습니다

**3. (말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말했으나, 혹은 공격할 생각이 없었으나) 불쾌한 말이 있었는가?**

**공승준**: 너 되게 열심히 한다. (공부를 나보다 열심히 안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애한테 그런 말을들을 때)

**이다은**: 여자가 왼손잡이이면 시집을 못 간다라는 말을 어른들께 들었을 때 조금 기분 나빴다.

**최재현**: 저는 벙어리장갑이란 단어를 썼다가 장애인을 조금 낮춰 부를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있다고 선생님께 지적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4. 학우들과 토론해 볼 논제/던지고 싶은 질문을 세 가지 뽑아보자.**

**이서희**: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책의 예시와 같이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전용 버스를 만든다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그 이유는? (단, 장애인전용버스를 늘리게 됨으로써 일반 버스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등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 **자신의 의견**: 반대한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와 거리가 먼 편인데 기다림의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 반대한다.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어느정도는 고려해서 점심시간 대에는 있어도 좋을 것 같다.